

노동자의 여가시간 격차*

손연정**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지난 15년간 여가의 격차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또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시간배분과 여가활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여가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전략을 고민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삶의 질과 사회적 격차에 관한 논의를 보다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여가의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간지원정책 활성화, 여가인프라 확대, 장시간 노동 해소, 성별 역할 분리 완화 등 시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 들어가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삶은 크게 노동-돌봄-여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영역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짐에 따라 격차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은 주로 노동시장에서의 격차 및 소득 격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하지만 노동과 소득의 격차는 교육, 주거, 건강 등 기초 서비스에 있어서의 격차로 증폭되고 확대될 수 있고(장지연 외, 2018), 일·생활균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심 요소인 여가 역시 노동시장과 소득 격차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사회적 격차에 관한 논의는 여가와 삶의 질 격차를 고려하여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일상의 삶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서도 시간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한 삶의 질 연구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 이 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으로 수행된 김태완 외(2023), 『한국사회 격차현상 진단과 대응전략 연구』 중 제5장 제3절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skysyj@kli.re.kr).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성, 연령, 학력수준, 소득수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계층에 따라 통제가능한 시간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자원이다(Gammage, 2010). 하지만 여가시간 불평등을 다룬 연구가 국내에서는 드물게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장기간의 여가시간 변화를 보여주는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기존의 관련 연구들이 주로 성별 및 소득수준에 따른 여가 격차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 젠더 및 소득계층 외 가족구조,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여가 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찾기가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인 여가시간에 주목하여 노동자의 사회계층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시간 격차에 관해 분석함으로써 일·생활균형 개선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5년간 한국 노동자들의 여가시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집단별로 여가시간이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 여가시간의 양적, 질적 격차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II. 시간배분 및 여가시간 격차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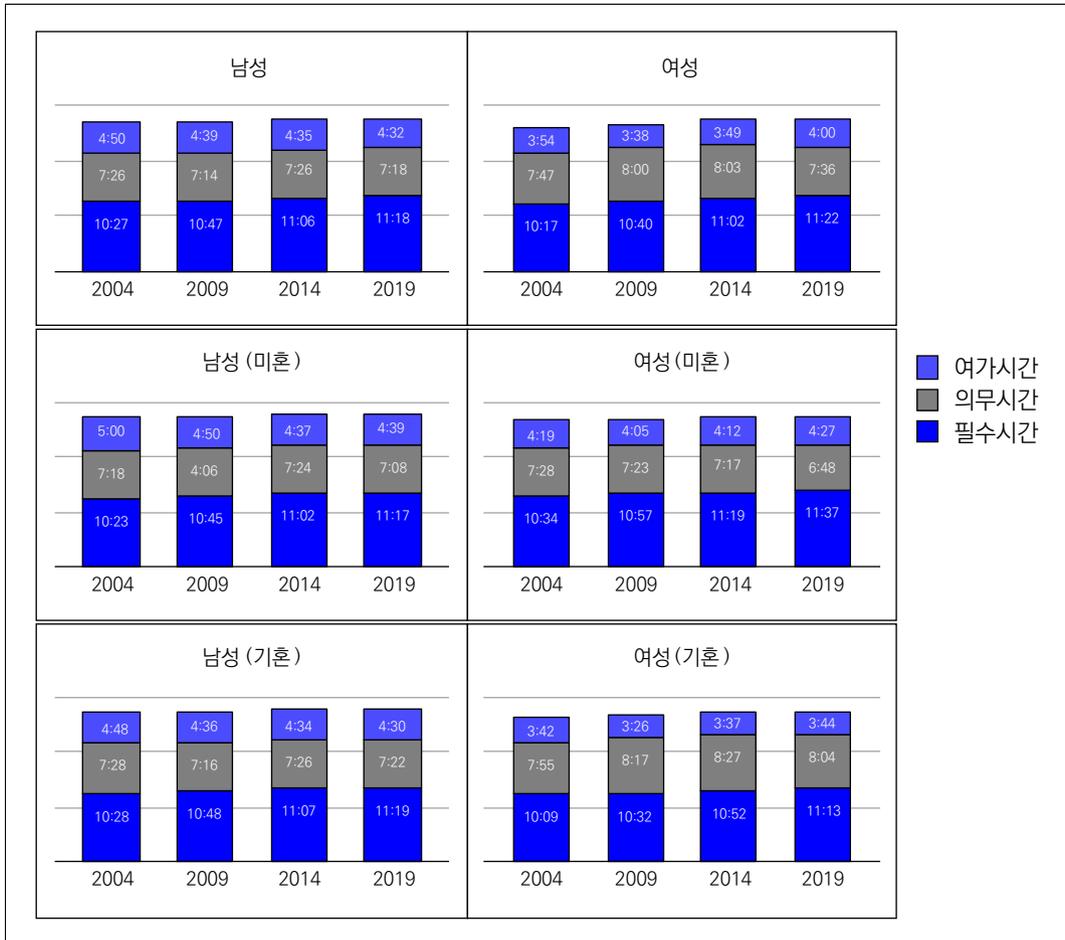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서 2004년, 2009년, 2014년,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 처음 시행되어 5년 주기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시간조사의 응답자들은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시간일지를 이틀 연속으로 직접 기재하며, 시간일지의 주요 조사항목은 행동분류에 따라 9개의 대분류, 45개 중분류, 156개 소분류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항목에 대한 시간 활용 정보를 제공한다. 생활시간조사는 조사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목적에 맞게 20세 이상 취업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1. 시간배분 및 여가의 양적 격차

먼저, 한국의 노동자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행동분류를 필수시간, 의무시간, 여가시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서 필수시간은 수면, 식사 등 개인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시간을 의미하며, 의무시간은 일과 가사노동 등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시간을, 여가시간은 교제 및 참여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 자원봉사 등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시간을 의미한다.

개인의 시간배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성에 따른 시간배분 양상을 비교해 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필수시간은 4분, 의무시간은 18분 많고, 여가시간은 32분 적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시간배분에 있어 남성에 비해 다소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참조). 한편, 지난 15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과 비교하여 2019년에 남성의 필수시간은 15년 전보다 51분 증가한 11시간 18분이며, 의무시간은 8분 감소한 7시간 18분, 여가시간은 15년 전보다 18분 감소한 4시간 32분으로 나타났다. 2019년 여성의 필수시간은 15년 전보다 1시간 5분 증가한 11시간 22분, 의무시간은 11분 감소한 7시간 36분, 여가시간은 6분 증가한 4시간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의무시간과 여성의 의무시간이 점차 차이가 감소하고 있고, 여가시간 역시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

[그림 1] 성별, 혼인상태별 시간 배분(필수, 의무, 여가) 추이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09, 2014, 2019.

혼인상태별 남성과 여성의 시간 배분 양상을 살펴보면, 2019년 남성은 기혼인 경우 미혼에 비해 필수시간과 의무시간은 각각 2분과 14분 길고 여가시간은 9분 적은 반면, 여성은 기혼인 경우 미혼에 비해 필수시간은 24분 적고, 의무시간은 1시간 16분 길며, 여가시간은 43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혼인으로 인한 의무시간의 증가가 상당하며 이것이 여가시간의 박탈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유·무급 노동시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개인은 유·무급 노동시간과 개인적 시간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 시간을 배분하므로 유·무급 노동시간은 여가시간 확보를 위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유·무급 노동시간에 대한 분석은 여가시간 격차 분석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표 1>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15년 동안 유·무급 노동시간의 변화 추이를 성별로 분석한 것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남성의 유급 노동시간은 6시간 25분, 무급 노동시간은 40분, 자녀돌봄 시간은 12분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유급 노동시간은 5시간 4분, 무급 노동시간은 2시간 14분, 자녀돌봄 시간은 18분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급 노동시간은 1시간 21분가량 적은 반면, 무급 노동시간 및

<표 1> 유·무급 노동시간 변화 추이(2004, 2009, 2014, 2019)

(일평균, 분)

| | 유·무급 노동시간 | | | | |
|-----------------------|-----------|-------|-------|-------|--------------------------|
| | 2004 | 2009 | 2014 | 2019 | Difference: 2019-2004 |
| Panel 1: 전체 | | | | | |
| 총 유급 노동시간 | 380.2 | 381.6 | 371.0 | 348.7 | -31.5 |
| 총 무급 노동시간 | 65.9 | 66.5 | 76.7 | 82.7 | 16.8 |
| 자녀돌봄 시간 | 9.2 | 5.7 | 14.3 | 15.0 | 5.8 |
| 총 유·무급 노동시간 및 자녀돌봄 시간 | 455.2 | 453.8 | 462.0 | 446.3 | -8.9 |
| Panel 2: 남성 | | | | | |
| 총 유급 노동시간 | 424.0 | 409.1 | 402.6 | 385.3 | -38.7 |
| 총 무급 노동시간 | 15.1 | 21.7 | 31.3 | 40.8 | 25.7 |
| 자녀돌봄 시간 | 6.9 | 3.4 | 11.6 | 12.1 | 5.2 |
| 총 유·무급 노동시간 및 자녀돌봄 시간 | 446.0 | 434.2 | 445.5 | 438.2 | -7.8 |
| Panel 3: 여성 | | | | | |
| 총 유급 노동시간 | 325.6 | 345.0 | 330.4 | 304.0 | -21.6 |
| 총 무급 노동시간 | 129.0 | 126.1 | 135.0 | 133.8 | 4.8 |
| 자녀돌봄 시간 | 12.2 | 8.8 | 17.7 | 18.4 | 6.2 |
| 총 유·무급 노동시간 및 자녀돌봄 시간 | 466.7 | 479.9 | 483.1 | 456.2 | -10.5 |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09, 2014, 2019.

자녀돌봄 시간은 1시간 40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에서 성별화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5년 동안의 유·무급 노동시간의 변화 추이를 보면, 2004년에 비해 2019년 유급 노동시간은 남성은 39분, 여성은 22분가량 감소하였으며, 무급 노동시간은 남성은 26분, 여성은 5분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유·무급 노동시간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총 유·무급 노동시간과 자녀돌봄 시간을 합한 시간이 15년 동안 남성은 약 8분, 여성은 약 11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노동시간의 감소가 여가시간의 증가로 이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라 시간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도별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성과 연령별 시간사용의 세부 항목 분포를 시기 순으로 분석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2019년을 기준으로 여가시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 60세 이상이 각각 5시간

<표 2> 연령별 시간배분

(일평균, 분)

| | 평균 시간 사용 | | | | | | | | | |
|----------------|----------|-------|-------|-------|-------|-------|-------|-------|-------|-------|
| | 남성 | | | | | 여성 | | | | |
| | 20~29 | 30~39 | 40~49 | 50~59 | 60 이상 | 20~29 | 30~39 | 40~49 | 50~59 | 60 이상 |
| Panel 1: 유급 노동 | | | | | | | | | | |
| 2004 | 431.8 | 439.8 | 437.0 | 416.8 | 360.9 | 372.8 | 327.3 | 352.0 | 314.9 | 228.6 |
| 2009 | 397.0 | 416.0 | 428.4 | 412.8 | 357.6 | 350.9 | 325.2 | 370.4 | 347.1 | 313.2 |
| 2014 | 407.9 | 425.2 | 410.8 | 408.5 | 342.6 | 346.6 | 307.4 | 341.9 | 354.4 | 286.6 |
| 2019 | 373.7 | 408.6 | 399.4 | 401.8 | 338.8 | 319.6 | 303.1 | 298.6 | 337.5 | 265.7 |
| △(2004-2019) | -58.1 | -31.2 | -37.6 | -15 | -22.1 | -53.2 | -24.2 | -53.4 | 22.6 | 37.1 |
| Panel 2: 무급 노동 | | | | | | | | | | |
| 2004 | 13.2 | 15.6 | 14.5 | 14.7 | 17.7 | 48.1 | 136.7 | 151.8 | 152.5 | 153.1 |
| 2009 | 19.4 | 22.8 | 21.1 | 20.4 | 24.8 | 55.6 | 128.5 | 143.5 | 144.8 | 145.5 |
| 2014 | 22.1 | 29.6 | 30.1 | 31.1 | 41.4 | 56.6 | 123.2 | 152.0 | 149.6 | 172.1 |
| 2019 | 28.4 | 38.8 | 41.1 | 38.5 | 49.7 | 58.0 | 112.2 | 151.8 | 146.3 | 167.5 |
| △(2004-2019) | 15.2 | 23.2 | 26.6 | 23.8 | 32 | 9.9 | -24.5 | 0 | -6.2 | 14.4 |
| Panel 3: 여가 시간 | | | | | | | | | | |
| 2004 | 281.3 | 270.9 | 286.8 | 305.5 | 330.7 | 261.9 | 212.1 | 222.4 | 229.5 | 254.2 |
| 2009 | 285.3 | 255.2 | 269.8 | 292.5 | 317.4 | 243.0 | 195.0 | 205.1 | 226.1 | 241.8 |
| 2014 | 267.9 | 236.2 | 267.7 | 288.5 | 325.6 | 248.7 | 205.1 | 218.7 | 224.7 | 261.9 |
| 2019 | 271.7 | 233.5 | 252.6 | 279.0 | 318.9 | 258.0 | 207.2 | 226.7 | 228.3 | 275.3 |
| △(2004-2019) | -9.6 | -37.4 | -34.2 | -26.5 | -11.8 | -3.9 | -4.9 | 4.3 | -1.2 | 21.1 |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09, 2014, 2019.

19분, 4시간 35분으로 가장 많고, 30대가 각각 3시간 54분, 3시간 27분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가시간이 대체로 청년기에 길고 자녀 양육기에 줄어들었다가 노동 시장에서 물러나는 은퇴시기를 기점으로 다시 길어지는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유급 노동시간의 경우 50~60대 여성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20~30대의 감소폭이 중장년층에 비해 확대되어 최근으로 올수록 유급 노동시간의 연령 격차가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무급 노동시간은 남성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지난 15년간 무급 노동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층으로 갈수록 성별 무급 노동시간 격차가 작은 것이 눈에 띈다. 여가시간은 60대 여성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40대 남성의 여가시간 변화가 가장 큰데 이들의 여가시간은 지난 15년간 약 30~40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 기간 동안 남성의 무급 노동시간의 증가가 여가시간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표 3〉 교육수준별 시간배분

(일평균, 분)

| | 평균 시간 사용 | | | | | | | |
|----------------|----------|-------|-------|--------|-------|-------|-------|--------|
| | 남성 | | | | 여성 | | | |
| | 중졸 이하 | 고졸 | 대졸 | 대학원 이상 | 중졸 이하 | 고졸 | 대졸 | 대학원 이상 |
| Panel 1: 유급 노동 | | | | | | | | |
| 2004 | 402.4 | 441.5 | 420.8 | 398.0 | 294.4 | 353.7 | 338.2 | 319.6 |
| 2009 | 390.7 | 430.4 | 398.9 | 394.2 | 349.9 | 360.3 | 327.3 | 293.7 |
| 2014 | 380.1 | 421.4 | 401.0 | 368.8 | 315.7 | 351.6 | 324.9 | 302.0 |
| 2019 | 341.1 | 407.2 | 385.8 | 364.4 | 272.0 | 332.2 | 303.2 | 283.8 |
| △(2004-2019) | -61.3 | -34.3 | -35.0 | -33.6 | -22.4 | -21.5 | -35.0 | -35.8 |
| Panel 2: 무급 노동 | | | | | | | | |
| 2004 | 15.9 | 14.4 | 15.4 | 15.9 | 152.3 | 135.0 | 85.1 | 144.6 |
| 2009 | 24.3 | 19.3 | 22.5 | 23.3 | 144.6 | 135.6 | 99.9 | 100.0 |
| 2014 | 40.8 | 28.0 | 29.6 | 38.3 | 166.7 | 142.2 | 111.7 | 111.3 |
| 2019 | 49.9 | 39.1 | 39.0 | 44.5 | 166.3 | 142.3 | 113.6 | 118.6 |
| △(2004-2019) | 34.0 | 24.7 | 23.6 | 28.6 | 14.0 | 7.3 | 28.5 | -26.0 |
| Panel 3: 여가 시간 | | | | | | | | |
| 2004 | 305.2 | 282.3 | 289.0 | 299.6 | 229.3 | 224.7 | 252.3 | 220.4 |
| 2009 | 294.5 | 270.5 | 279.0 | 284.4 | 220.4 | 202.7 | 230.1 | 255.3 |
| 2014 | 294.1 | 271.7 | 268.6 | 288.6 | 239.4 | 217.5 | 229.8 | 248.6 |
| 2019 | 309.3 | 264.6 | 266.3 | 280.7 | 266.3 | 223.3 | 236.2 | 249.2 |
| △(2004-2019) | 4.1 | -17.7 | -22.7 | -18.9 | 37.0 | -1.4 | -16.1 | 28.8 |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09, 2014, 2019.

학력수준 역시 개인의 시간배분과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교육은 여가에 필요한 교양, 식견, 호기심 등을 증진시키므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여가의 양과 질 모두 높은 수준에서 행해지며, 소득, 직업 수준보다 교육수준이 여가활동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Torkildsen, 2012; 김광득, 2003). <표 3>에서는 학력수준에 따른 시간배분 양상을 연도별로 제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중졸 이하가 고졸 혹은 대졸, 대학원 이상에 비해 총 여가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졸 이하를 제외하면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여가시간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가시간의 시간에 따른 변화 중 눈에 띄는 점은 2004년에 비해 2019년에 남성은 중졸 이하에서 여가시간이 근소하게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모든 집단에서 여가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중졸 이하와 대학원 이상에서 여가시간이 각각 37분과 29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가시간의 학력에 따

<표 4> 소득수준별 시간배분

(일평균, 분)

| | 평균 시간 사용 | | | | | | | | | |
|----------------|----------|---------|---------|---------|--------|-------|---------|---------|---------|--------|
| | 남성 | | | | | 여성 | | | | |
| | <200 | 200~300 | 300~400 | 500~600 | 600 이상 | <200 | 200~300 | 300~400 | 500~600 | 600 이상 |
| Panel 1: 유급 노동 | | | | | | | | | | |
| 2004 | 418.3 | 437.6 | 431.8 | 433.0 | 409.6 | 321.2 | 379.0 | 389.0 | 345.0 | 408.3 |
| 2009 | 400.5 | 428.7 | 422.4 | 383.9 | 386.9 | 342.4 | 346.5 | 383.0 | 408.6 | 433.5 |
| 2014 | 382.0 | 426.2 | 406.4 | 402.8 | 397.4 | 320.6 | 365.6 | 361.6 | 326.0 | 365.5 |
| 2019 | 312.6 | 390.9 | 398.5 | 402.5 | 392.4 | 264.8 | 326.7 | 331.0 | 290.4 | 308.2 |
| △(2004-2019) | -105.7 | -46.7 | -33.3 | -30.5 | -17.2 | -56.4 | -52.3 | -58.0 | -54.6 | -100.1 |
| Panel 2: 무급 노동 | | | | | | | | | | |
| 2004 | 15.4 | 14.5 | 15.4 | 13.9 | 12.3 | 130.8 | 106.0 | 107.6 | 125.5 | 87.1 |
| 2009 | 23.2 | 20.2 | 19.7 | 20.9 | 19.5 | 129.0 | 104.4 | 115.7 | 97.4 | 89.6 |
| 2014 | 36.1 | 28.7 | 28.8 | 29.8 | 28.3 | 142.0 | 105.2 | 123.9 | 134.3 | 119.0 |
| 2019 | 61.3 | 45.1 | 42.4 | 42.1 | 34.9 | 137.2 | 120.6 | 134.9 | 150.1 | 133.5 |
| △(2004-2019) | 45.9 | 30.6 | 27.0 | 28.2 | 22.6 | 6.4 | 14.6 | 27.3 | 24.6 | 46.4 |
| Panel 3: 여가 시간 | | | | | | | | | | |
| 2004 | 293.8 | 278.3 | 290.6 | 289.6 | 316.3 | 234.7 | 221.2 | 220.1 | 246.0 | 207.3 |
| 2009 | 285.8 | 264.1 | 263.4 | 297.5 | 302.8 | 219.3 | 217.3 | 194.9 | 198.6 | 191.1 |
| 2014 | 291.6 | 256.7 | 263.7 | 276.9 | 286.0 | 232.8 | 221.3 | 201.6 | 230.0 | 206.5 |
| 2019 | 322.8 | 270.6 | 250.2 | 257.4 | 270.4 | 284.5 | 238.0 | 222.7 | 228.3 | 232.8 |
| △(2004-2019) | 29 | -7.7 | -40.4 | -32.2 | -45.9 | 49.8 | 16.8 | 2.6 | -17.7 | 25.5 |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09, 2014, 2019.

른 격차가 여성의 경우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교육수준별 여가시간의 차이에는 연령효과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가활동이 사회계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소득은 여가활동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소득 자체의 효과 때문일 뿐 아니라 여가가 갖는 소비적 속성 때문이다(주은선, 2014). 먼저, 소득수준별 시간배분 양상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4~2019년 기간 동안 유·무급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유사한 패턴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급 노동시간은 모든 소득집단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무급 노동시간은 모든 소득집단에서 15년 동안 증가한 것이 확인되며, 특징적인 것은 남성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2004년 대비 2019년의 무급 노동시간 증가폭이 작게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무급 노동시간 증가폭이 크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여가시간의 경우 남성은 소득집단에 관계없이 대체로 여가시간이 감소한 반면 여성은 전반적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며,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여가시간 증가가 가장 크게 이루어진 것이 눈에 띈다.

2. 여가의 질적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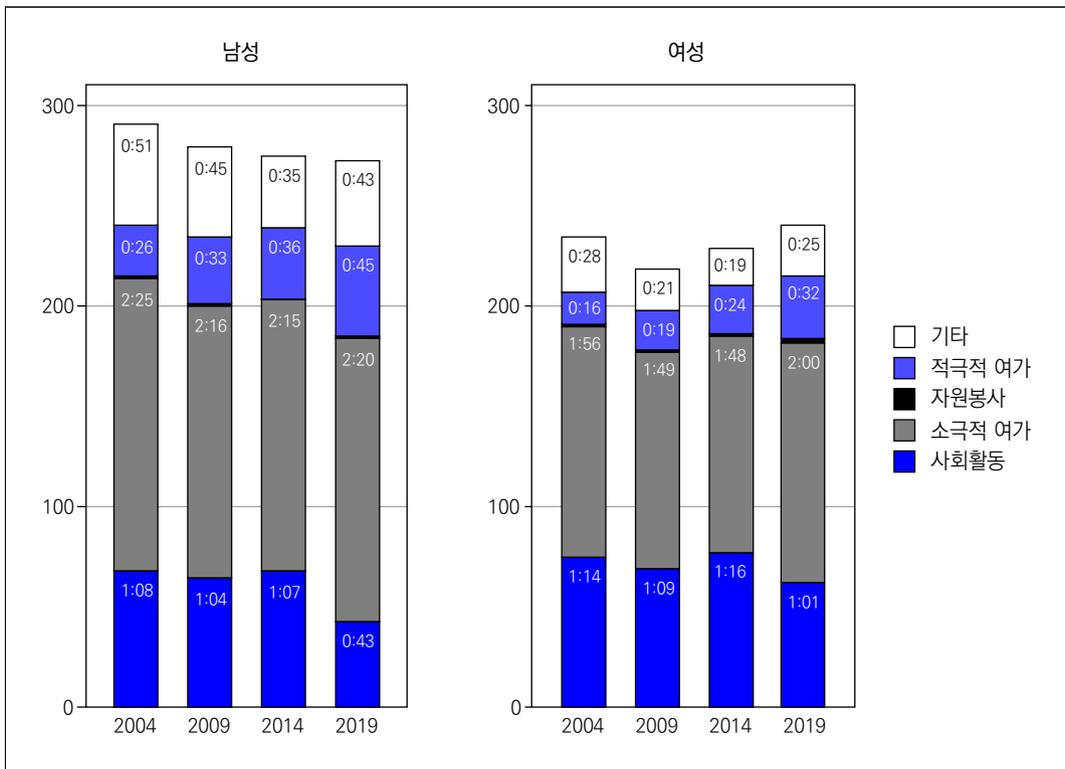
기존 연구들에서는 여가에 대하여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은선(2014)에서는 여가시간이 “개인 차원의 재생산 시간의 일부로서 의무에서 벗어나는 자유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재량시간”이라고 설명하였다. Jacobs and Gerson(2004)은 일·생활균형을 위한 일상생활의 재구성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일과 가족을 넘어 일과 개인적 삶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여가는 개인적 시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Aguiar and Hurst(2007)는 여가활동 시간은 비노동시간에 행해지는 활동 중에서 효용성의 관점에서 “오로지 직접적인 즐거움과 효용을 얻기 위해 추구되고 행해지는 활동”으로 정의하며, 이는 상품으로 대체가능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을 사회활동, 소극적 여가활동, 봉사활동, 적극적 여가활동, 기타 여가활동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난 15년 기간 동안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소극적(passive) 여가활동은 주로 가정에서 휴식을 위해 행하는 여가로, TV시청, 책읽기 등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 등 앉아서 수행하는 활동들을 의미한다. 한편, 적극적(active) 여가활동은 문화 및 관광 활동, 스포츠 및 레포츠 활동을 포함한다.

[그림 2]는 여가시간 활동을 위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활동별로

시간의 배분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사회활동 시간은 여성이 남성보다 18분 많고, 소극적 여가와 적극적 여가는 남성이 각각 20분, 13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04년부터 2019년의 기간 동안 성별 여가활동 시간의 격차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개별 활동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에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활동에 할애한 시간이 2004년에 비해 줄어든 대신 적극적 여가활동 시간이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TV 시청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극적 여가활동 시간은 전체 여가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활동으로, 15년 기간 동안 소극적 여가활동 시간은 남녀 모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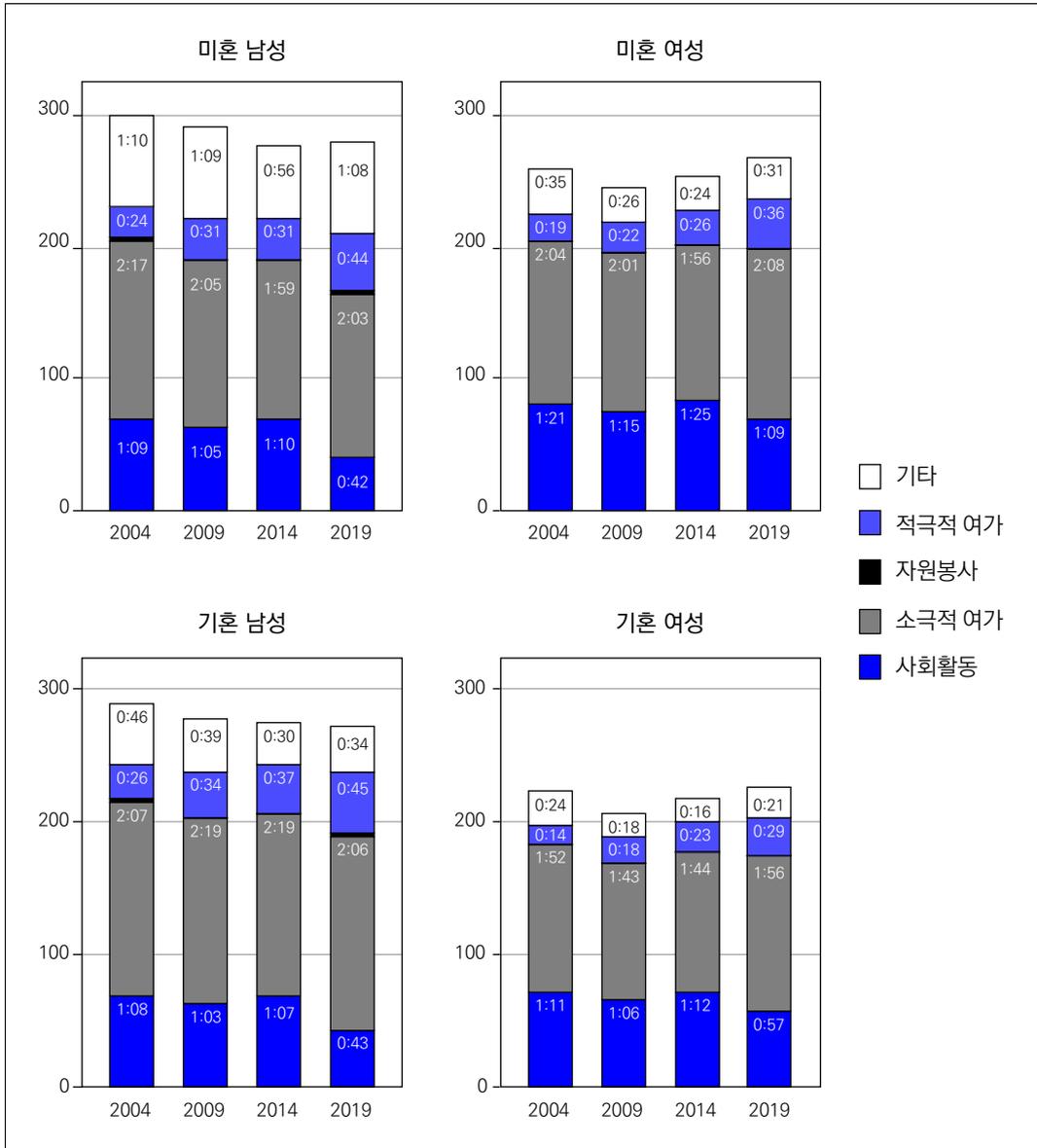
[그림 2] 성별 여가시간 구성 추이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09, 2014, 2019.

[그림 3]은 성별, 혼인상태별 여가시간 항목별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혼인상태에 따른 여가시간 배분양상을 보면, 남성은 기타 여가활동을 제외하면 모든 항목에서 기혼이 미혼에 비해 여가시간이 근소하게 긴 것으로 확인된 반면, 여성은 모든 여가 항목에서 기혼이 미혼에 비해 여가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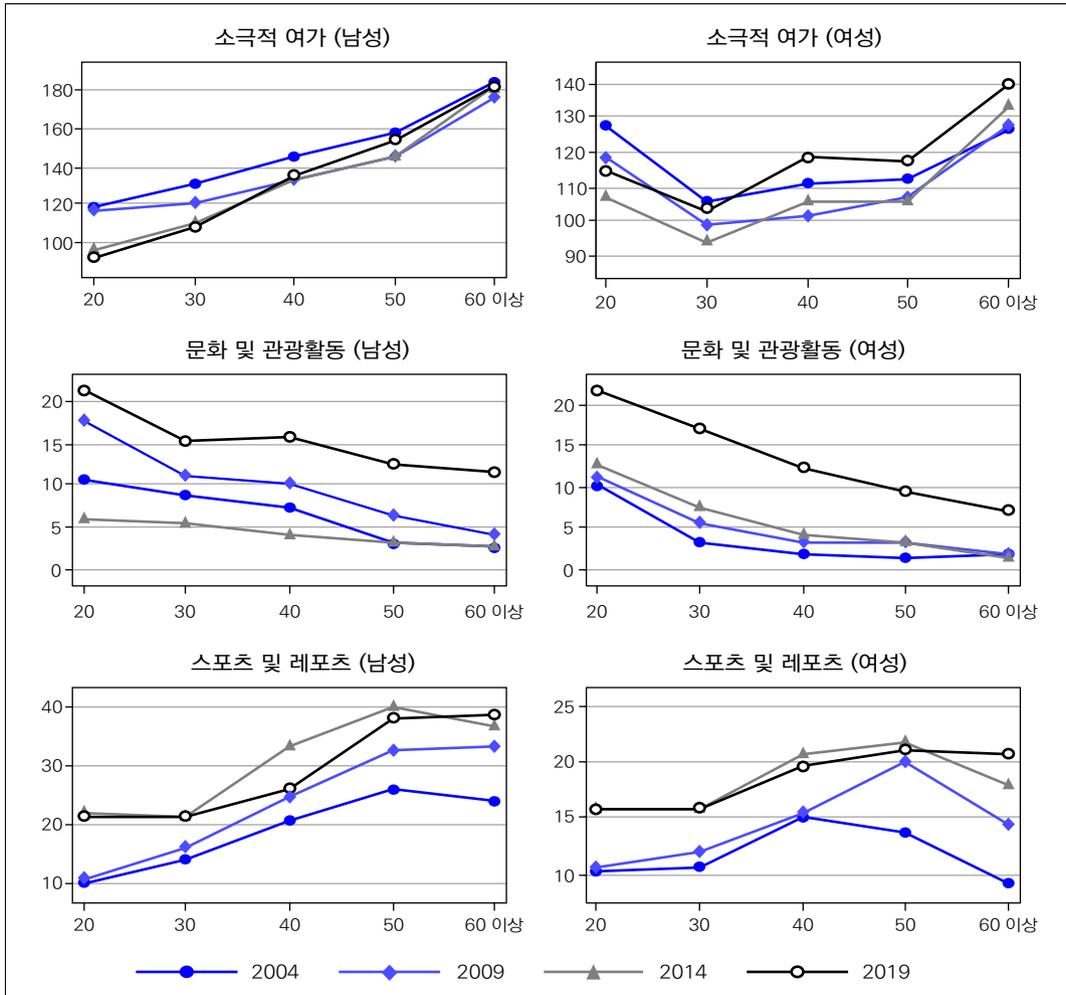
[그림 3] 성별, 혼인상태별 여가시간 구성 추이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09, 2014, 2019.

한편, 연령에 따른 여가시간의 세부 구성항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극적 여가활동과 스포츠 및 레포츠는 대체로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 문화 및 관광활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연령별 여가시간 격차가 커지는 양상이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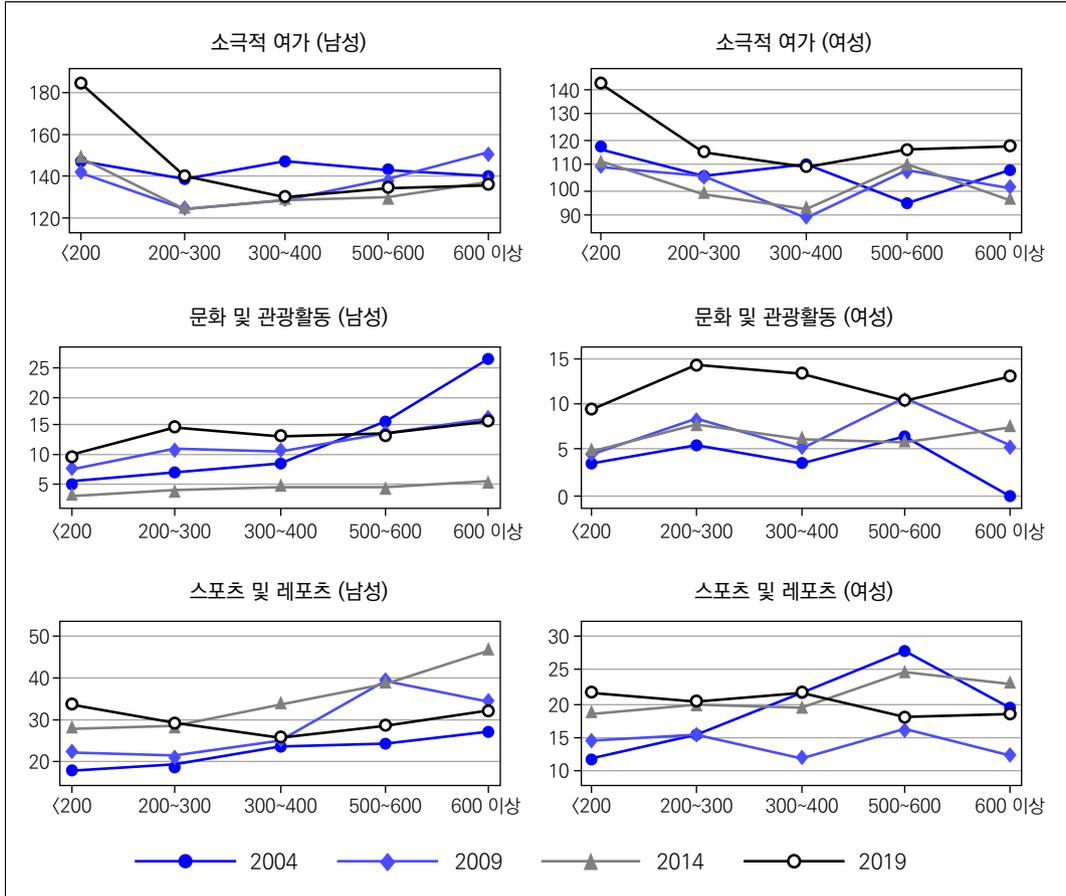
[그림 4] 연령별 여가시간 구성 추이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09, 2014, 2019.

다음으로, 소득수준별 여가활동의 질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소득수준별 세부 여가활동 항목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림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TV 시청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극적 여가활동은 저소득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으로 오면서 이러한 패턴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문화 및 관광활동, 스포츠 및 레포츠와 같은 적극적 여가활동 시간의 경우 2004년에는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패턴이 발견되나, 2019년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적극적 여가의 변화에는 가격효과(복지관련 정부지출 증가로 생활 SOC 등 여가 인프라 증가 및 접근성 확대), 소득효과(평균소득의 증가), 여가의 보편화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소득에 따른 소극적 여가 및 적극적 여가 시간 연도별 추이 비교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09, 2014, 2019.

3. 여가시간 영향요인 분석

여가시간의 격차를 유발하는 주요 결정 요인으로 기존 연구들은 성별, 학력, 소득 등의 영향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과 여가시간 및 시간배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가 비중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의 모형 (1)에서 제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여가 비중은 필수시간, 의무시간, 여가시간의 총합에서 여가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아울러 <표 5>의 모형 (2)는 여가생활의 질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종속변수를 여가시간 중 적극적 여가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설정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대상인 20대 이상 취업자의 여가시간 비중은 평균 39.3%이며, 여가시간 중 적극적 여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9.5%로 나타났다.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여가활용의 관계에 관한 분석에서 먼저 성별 효과를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동일할 때 여가 비중과 여가시간 중 적극적 여가가 차지하는 비중 모두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성별화된 역할수행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여가 비중은 학력수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의 향유에 대해 더 큰 가치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여가시간 중 적극적 여가의 비중 또한 학력수준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의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 측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학력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연령별 효과를 보면, 여가비중은 30대와 40대가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 중 적극적 여가의 비중은 20대와 30대가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30대가 여가에 있어 가장 취약한 집단이며 60대 이상이 가장 여가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수준이 여가에 미치는 영향은 여가의 양과 질에 있

〈표 5〉 여가의 영향요인 분석

| | | (1) 여가시간 비중 | (2) 적극적 여가시간 비중 |
|------------------------|--------------|----------------------|----------------------|
| 성별 (기준: 남성) | 여성 | -7.941*** (0.188) | -1.425*** (0.125) |
| 종사상지위 (기준: 임금근로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2.137*** (0.342) | -0.654*** (0.236) |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2.088*** (0.235) | -0.045 (0.153) |
| | 무급가족종사자 | 3.881*** (0.318) | 0.030 (0.214) |
| 학력 (기준: 정규교육 받지 않음) | 고등학교 졸업 | 0.721*** (0.248) | 2.168*** (0.158) |
| | 대학교 졸업 | 2.932*** (0.305) | 3.361*** (0.199) |
| | 대학원 이상 | 4.350*** (0.507) | 4.333*** (0.349) |
| 연령 (기준: 20대) | 30~39세 | -3.963*** (0.329) | 0.382* (0.202) |
| | 40~49세 | -2.466*** (0.335) | 1.606*** (0.207) |
| | 50~59세 | -0.896** (0.366) | 3.164*** (0.233) |
| | 60세 이상 | 3.981*** (0.412) | 3.376*** (0.256) |

<표 5>의 계속

| | | (1) 여가시간 비중 | (2) 적극적 여가시간 비중 |
|-------------------------|-------------------|-----------------------|-----------------------|
| 가구소득 (기준: 200만 원 미만) | 200만~300만 원 | -2.201 *** (0.251) | 0.671 *** (0.159) |
| | 300만~400만 원 | -2.465 *** (0.331) | 1.660 *** (0.224) |
| | 400만~500만 원 | -1.352 *** (0.434) | 2.594 *** (0.301) |
| | 500만 원 이상 | -0.948 *** (0.259) | 3.103 *** (0.184) |
| 혼인상태 | 기혼 | -2.553 *** (0.248) | -0.532 *** (0.155) |
| 미취학 자녀 수 | 미취학 자녀 수 | -0.008 (0.198) | -1.881 *** (0.130) |
| 맞벌이 가구 여부 | 맞벌이 | -0.856 *** (0.198) | 0.002 (0.129) |
| 직업 (기준: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0.644 (0.453) | -0.173 (0.302) |
| | 사무 종사자 | -0.891 * (0.456) | 0.130 (0.303) |
| | 서비스 종사자 | -6.188 *** (0.456) | -1.706 *** (0.305) |
| | 판매 종사자 | -3.930 *** (0.477) | -2.678 *** (0.316) |
|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3.632 *** (0.512) | -4.066 *** (0.322) |
|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6.247 *** (0.501) | -2.490 *** (0.323) |
| |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5.873 *** (0.495) | -1.807 *** (0.323) |
| | 단순노무 종사자 | -3.445 *** (0.505) | -2.452 *** (0.329) |
| 거주 지역 | 수도권 | -1.093 *** (0.182) | -0.315 *** (0.118) |
| 상수 | Constant | 48.649 *** (0.621) | 8.370 *** (0.404) |
| Observations | | 114,703 | 113,334 |
| R-squared | | 0.039 | 0.033 |

주: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4, 2009, 2014, 2019.

어서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여가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에서는 저소득집단과 고소득집단에서 모두 여가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소득 집단이 여가비중에 있어서도 중간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의 증가가 여가시간과 선형관계에 있고 저소득 계층에서 여가시간이 짧게 나타나는 이중빈곤 현상을 지적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가시간 중 적극적 여가의 비중을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적극적 여가활동의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의 질에 있어서는 저소득 계층이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가구구성이 여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기혼인 경우 여가비중, 적극적 여가비중 모두 미혼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학 자녀수는 적극적 여가의 비중을 유의미하게 낮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Ⅲ. 요약 및 결론

여가시간의 격차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이 투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불평등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본 연구는 여가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국사회의 격차와 불평등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삶의 질과 사회적 격차에 관한 논의를 보다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지난 15년간 여가의 격차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시간배분과 여가활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여가 불평등 개선을 위한 전략을 고민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여가활동에 있어 성별 격차가 존재한다. 분석 기간 동안 남성의 가사노동 및 돌봄 노동 시간 증가가 성별 여가시간 격차 완화를 가져온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혼 여성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기혼 남성의 여가시간보다 46분이 짧다. 둘째, 여가시간과 여가의 내용에 있어 학력에 따른 격차가 존재한다. 적극적인 여가에 있어서의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는 상대적으로 고학력 집단에서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기회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소득에 따른 여가시간 격차는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평균소득의 증가로 인한 소득효과도 있지만 정부의 생활 SOC 확대 등 여가 인프라 구성에 따른 여가 기회와 접근성 확대라는 가격효과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여가 격차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서는 시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성별 여가격차 해소를 위해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 성별 역할 분리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여성의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같은 시간지원정책을 남성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에 따른 여가활용 격차 완화를 위해 여가 인프라 확대를 위한 투자와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노동과 일 중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일·생활균형은 적정 유급노동시간을 유지하고 그 밖의 나머지 시간을 가정생활과 여가활동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한 여가시간 확보와 일·생활균형 증진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규제 강화를 통한 장시간 노동 해소와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을 통한 근로자의 시간 주권 보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KLI](#)

[참고문헌]

- 김광득(2003), 「한국의 여가 정책」,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학술세미나자료집』, pp.8~32.
- 김태완 외(2023), 『한국사회 격차현상 진단과 대응전략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간 예정.
- 장지연·이현주·전병유·김근주·손연정·윤자영·정세은(2018), 『사회적 위험과 격차 심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15-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은선(2014), 「노동인가, 돌봄인가, 여가인가? - 전일제 임노동자 맞벌이 부모의 시간배분에 대한 젠더 영향과 학력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연구』 45(3), pp.5~34.
- Aguiar, M. and E. Hurst(2007), “Measuring Trends in Leisure: The allocation of time over five decade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2(3), pp.969~1006.
- Gammage, S.(2010), “Time Pressed and Time Poor: Unpaid household work in Guatemala,” *Feminist Economics* 16(3), pp.79~112.
- Jacobs, J. A. and K. Gerson(2004), “Understanding Changes in American Working Time: A synthesis,” C. F. Epstein and A. L. Kalleberg(eds.), *Fighting for Time: Shifting boundaries of work and social life*, pp.25~45.
- Torkildsen, G.(2012), *Leisure and Recreation Management*, Routledge.